https://doi.org/10.5392/JKCA.2019.19.08.427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Perceptions toward Career Problem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김소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ora Kim(srkim@scnu.ac.kr)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문제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되며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인식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다섯 집단(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비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교사)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측면, 가정환경 측면, 진로활동 측면, 제도 측면에서의 진로문제에 대한 진술문 34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본 조사에서 밝혀진 4개의 인식 유형은 “중립적 인식 유형”, “경제문제 인식 유형”, “진로교육문제 인식 유형”, “전문적 지원 문제 인식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인식은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진로 인식의 문제는 진로교육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다문화청소년 | 진로문제 | 인식유형 | Q방법론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troduce a new approach in overcoming career problems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to explore public views on their careers. Using the Q-methodology, the types of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s and their features from diverse views were drawn, Data from 35 participants and 34 statemen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QUANL-PC program. The identified perception types were classified as four types: neutral perception type, economic hardship perception type, lack of career training perception type, and lack of professional support perception type. The results found that views toward career problem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re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and their perceptions were more varied and specific beyond the dichotomy. Therefore, to promote the careers development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more individualized career supporting strategy should be provided based on the applicable perception types.

■ keyword : | Multicultural Adolescents | Career Problem | Perception Type | Q-methodology |

* 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제(2017S1A5A2A01024179)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9년 06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8월 04일
수정일자 : 2019년 07월 22일 교신저자 : 김소라, e-mail : srkim@scnu.ac.kr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혼인·귀화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 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이란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을 지칭하나, 한 가족 내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용어이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초·중등학교 전체 학생의 2.2%(122,212명)로 2017년(109,387명) 대비 11.7%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10.688명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수는 2012년 9,627명에서 18,068명으로, 고등학생 수는 2012년 3,409명에서 10,6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들 중 80% 이상이 중도입국이 아닌 국내 출생자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문화 중·고등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1].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서 청소년의 위치는 주변부에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설문 대상의 43.4%에 그쳤다. 학교 위주인 교육부의 지원 정책 중 상당 부분이 겉도는 이유이다. 언어 장벽과 학업 부진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기피심리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진로 교육과 직업 정보 제공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 사회의 진로 시스템과 진학·취업 문화에 대한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문화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기술과 언어를 가르치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직업교육기관이 증설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 문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생 증가세에 비해 공교육 인프라와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처음부터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인종국가를 채택했던 미국이지만, 그동안 다인종,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음을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다문화 가정 청소년 문제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인종, 다민족국가화 상황을 대비하여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인종과 문화의 문제가 아닌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예상되는 학업의 어려움과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교육기관이 아닌 대안학교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볼 때[1],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마다 중도탈락 학생들이 증가하며 이들 중 상당 수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다[3]. 학교 복학을 못하는 50% 이상의 학생들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대안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겨나게 된다. 오늘날 모든 나라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운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다른 언어, 외모, 생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소수의 연구들을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 연구[4],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의 진로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료애착 정도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 전종미와 장진경의 연구[5],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장 큰 고민이 공부·학업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직업·진로문제 임을 보여준 우룡의 연구[6]가 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인데, 향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연구목적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의 정책이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더불어 교육적인 지원과 사회복지 측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편견과 오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진로의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장기적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의 이해와 유형화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진로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들이 지니는 인식은 어떻게 구조화되며 인식유형별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인식 유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II. 문헌 고찰

1. 다문화 청소년 진로 현황

진로와 노동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주근로자가정의 자녀들이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것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와 한국에 와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차선책으로 취업하는 유형이 있다[7-9]. 이주 근로자 가정 자녀의 경우,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입학을 하더라도 대다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문제 역시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현실과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자녀들의 지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전입학도 한국내 지원단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주 근로자들의 정보접근력이 낮다. 자녀가 취학을 한 경우에도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진학, 진로 정보교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자녀들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진학은 비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시장 역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자격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의 연구[10]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등 넓은 의미의 다문화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교육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과 지속적·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강화, 허브기관 구축을 통한 안정적·통합적 진로교육 시스템 마련, 다문화가정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개선 방안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비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식, 진로에 대한 준비와 향후 진로계획을 조사하였다[11].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66.5%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할 때가 있다"고 답하였다. 진로 준비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진로 관련 적성/흥미 검사 경험은 일반학생이 다문화 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 외에 소질과 적성 함양을 위한 노력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업성취보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대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2/3 이상이 대학 진학(68.8%)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15.0%가 "아직 생각 중이다"라고 응답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다음으로 유학(4.9%), 취업(4.3%), 진학과 취업병행(2.6%)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는 비다문화인들을 포함시켜 그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다문화 청소년 진로 문제 관련 요인

교육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은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했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저학년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나 고등학생 다문화 학생은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12]. 이는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몰입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이외에 활동이나 강연 등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가족, 인터넷과 직업체험, 친구나 선배, 책, 친척 순서로 나타났다. 결국 진로에 대한 정보에 있어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3]. 또한, 진로탐색과 관련하여 대학 진학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이나 진로 교육은 보다 좋은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 훈련과 심화 직무 교육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부가 되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과 진로교육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지원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한·일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와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한 선행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였다[14]. 이를 통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의미코드가 도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가정, 학교, 제도의 측면에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진로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오성배와 서덕희의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 행동과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4]. 이 연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소속기관, 진로지도 여부, 지역 사회 환경 등에 따라 진로의식과 진로준비 행동의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수준이나, 사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진로의식과 진로준비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들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김민경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15]. 연구 결과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을 포함한 진로결

정효능감 전체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해 확신을 갖고 자신의 진로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진로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진로선택시 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에 있어서 선호와 진로선택에 필요한 높은 사전 이해 및 준비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진로선택시 자신의 욕구와 현실을 조화시켜 타협하는 등 진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냈다.

최윤희와 김순자는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16]. 다양한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보면 학교형태와 학업성적, 한국어실력, 국가소속감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로성숙도의 경우 성별, 학교형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국가 소속감의 이중적 자기규정의 변인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진로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차이에 따른 개별화를 통하여 이중문화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직접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를 강조한 선행 연구가 있다[17]. 이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가족 구성원들의 이해와 대인관계가 청소년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역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예민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각종 진로문제들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다른 가족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치밀하고 시급한 프로그램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정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로지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및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인식의 유형화를 위한 진술문에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제도적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진로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심리적인 차원으로서의 태도, 신념 등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차원으로서는 가족의 지원, 동료와의 관계, 사회적 수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사회참여의 기회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비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떠한 영역에서 더 크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인식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진로문제 인식을 통해 단순한 학습지원 수준에서 벗어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방법이 될 Q 방법론은 일반적인 방법론이 실증주의에 근거한 정량적 접근과 주관성에 입각한 정성적 접근의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함께 시도하는 방법이다[18]. Q방법론은 응답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표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응답자의 관점에서 시작되며, 사용되는 진술문은 자아참조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9].

1. Q표본 구축

Q표본 구축에 앞서 먼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신념, 관점, 의견, 태도, 선호, 평가,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모든 Q항목들을 진술하였다. 즉

의견의 집합체 또는 통합체(concourse)인 모집단(Q population)을 수집하는 것이다. Q표본 구축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 진로 관련 기사 및 학술논문 등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선호, 의견 및 태도 등 주관적 인식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Q 후보군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Q표본을 구축하였다.

표 1.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Q표본

진술문
1.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2.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
3.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4. 우리 사회는 취업 시장에서 다문화인을 공평하게 대해 준다.
5. 다문화인이 가지는 문화적 차이는 사회생활에 장애가 된다.
6. 다문화 학생들은 이중언어능력으로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7.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 동등하게 취업하기 힘들다.
8. 사람들은 다문화인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9.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0.다문화적 배경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11.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12.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13.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14.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16.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7. 다문화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
18. 다문화인들도 원한다면 언제라도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9.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20.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
2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22.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
23.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4.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5.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26. 어려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27. 다문화인의 고용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8. 동등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인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다.
29.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0.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3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32.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33.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활동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34. 다문화 학생들은 직업체험이나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다.

2. P표본 구성

일반적으로 Q방법론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신념을 유형화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P모집단을 구성한다[20-24]. 선행 연구들은 P 표본의 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하여 Q분류 조사에 참여시킬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P표본은 약 30명 정도가 적당하며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인식의 중요성 차를 다루기 때문에 P표본의 크기에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18]. 이 연구에서는 35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P표본을 구성하였다.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은 다문화 청소년이 2명,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에서 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만 13세에서 17세의 다문화 청소년 8명, 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의 비다문화 청소년 7명, 만 39세에서 만 52세의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7명, 만 42세에서 만 50세의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7명, 다문화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만 29세에서 만 57세에 이르는 교사 6명을 포함한 총 35명을 선정하였다. 성별 구성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은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비다문화 청소년은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이었으며,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여성이 5명, 남성이 2명,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여성이 4명, 남성이 3명이었다. 교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각각 3명씩 참여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다문화 청소년은 13-15세가 4명, 16세와 17세가 4명이었으며, 비다문화 청소년은 만 14세와 15세가 3명, 만 16세에서 만 18세가 4명이었다. 다문화 학부모는 30대 후반이 3명, 40대가 2명, 50대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는 40대가 6명, 50대가 1명이었다. 교사의 경우,

20대가 2명, 30대가 1명, 40대 2명, 50대 1명으로 이루어졌다.

3. Q분류 실시

35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실제 Q표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는 Q분류(Q sorting)로, Q표본으로 추출된 개별 진술문 항목과 항목별로 부여된 일련번호가 함께 적힌 카드 세트와 Q분류 조사표[그림 1]를 응답자에게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Q분류를 위해 매우 긍정 +4에서 매우 부정 -4까지 9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응답자는 34개 항목으로 구성된 카드를 보고 자신의 의견과의 부합정도에 대한 순위를 정하고 조사표에 항목별 번호를 기입하였다. 응답자들이 먼저 34개 카드를 긍정, 중립, 부정의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로 각각 긍정과 부정의 정도에 따라 재분류하도록 하였다. 각 카드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카드번호를 조사표의 해당란에 기입하게 하였다. 응답자별 Q분류 작업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총 35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Q분류는 2018년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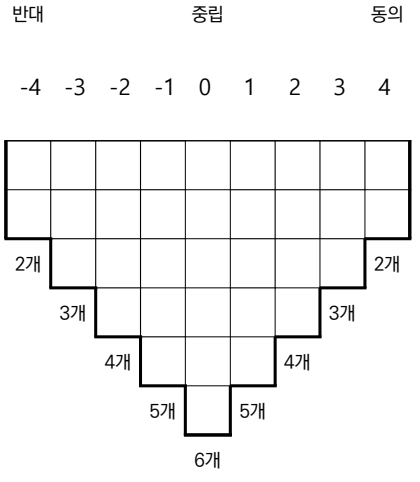

그림 1. Q분류 조사표

4. 자료분석

분석결과를 기초로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인식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성을 도출하고 연관성을 찾아내었다. 이를 위해 먼저 35명의 P표본으로부터 수집된 Q분류 결과를 분석 가능한 점수로 변환시켰다. 가장 동의하는 2개 진술문(+4)에 최고점인 9점을 부여하고 +3은 8점, +2는 7점, +1은 6점, 중립 0은 5점으로 하였다. 가장 반대하는 2개의 진술문(-4)에는 최하점 1점, -3에는 2점, -2에는 3점을 주고, -1은 4점을 부여한 후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였다. 데이터는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통해 처리하였다. Q 분류는 배리맥스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해 각 항목의 상관관계 및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견해가 비슷한 응답자들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과 같은 인식 체계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IV. 분석 결과

1. 유형 분류 결과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인식에 관한 Q분류는 최종적으로 4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분류 과정에서 5개 이상의 유형 분류는 유형 간 의미 없는 차이를 보였으며, 3개 이하의 유형 분류는 한 유형이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타 유형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5]. 이에 최종적으로 분류된 4개의 유형은 서로 다른 요인(Q factor)을 특징으로 나타내며,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태도,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밝혀진 4개의 인식 유형을 그 특성에 따라 제1유형은 "중립적 인식 유형", 제2유형은 “경제 문제 인식 유형”, 제3유형은 “진로교육 문제 인식 유형”, 제4유형은 “전문적 지원 문제 인식 유형 ”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각각 요인들의 아이겐값은 각각 11.4693, 4.0982, 2.2480, 1.61821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0.3277, 0.1885, 0.0842, 0.0462로 나타났다. 중립적 인식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장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중립적 인식 유형으로 명명하였으

며, 두 번째 유형은 이 유형만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경제적 문제가 심각함을 크게 인식하고 있기에 경제 문제 인식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제 3유형과 제 4유형 역시 각각의 유형에서만 두드러지게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진로교육과 전문적 지원이므로 진로교육 문제 인식 유형 및 전문적 지원 문제 인식 유형으로 하였다.

[표 2]에서는 각 유형별로 P표본의 구성과 요인가중치(factor weight)가 제시되어 있다. 35명의 P표본에서 제1유형은 4명, 제2유형은 16명, 제3유형은 7명, 제4유형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해당 요인의 전형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임을 뜻한다.

표 2. 요인별 인자가중치

유형	ID	구분	성별	연령	가중치
제1유형 (n=4)	01	다문화 청소년	여	14	1.4983
	03	다문화 청소년	여	13	1.1996
	18	다문화 학부모	여	39	1.1276
	22	다문화 학부모	남	52	2.2272
제2유형 (n=16)	02	다문화 청소년	남	15	0.7339
	04	다문화 청소년	남	16	0.8121
	05	다문화 청소년	여	17	1.0908
	06	다문화 청소년	남	17	0.7394
	07	다문화 청소년	여	17	0.6672
	08	다문화 청소년	남	14	0.7404
	09	비다문화 청소년	여	14	04999
	10	비다문화 청소년	남	14	1.4754
	11	비다문화 청소년	여	16	0.9231
	12	비다문화 청소년	남	15	0.3443
	13	비다문화 청소년	여	17	0.5586
	17	다문화 학부모	여	43	0.9463
	20	다문화 학부모	여	38	0.6849
	21	다문화 학부모	여	36	0.5661
	25	비다문화 학부모	여	47	1.1856
	29	비다문화 학부모	남	50	0.6007
제3유형 (n=7)	14	비다문화청소년	남	18	0.4564
	24	비다문화 학부모	여	45	0.6004
	26	비다문화 학부모	남	47	0.7372
	27	비다문화 학부모	여	45	1.1376
	28	비다문화 학부모	남	48	1.2950
	31	교사	남	41	1.0388
	33	교사	여	28	1.0023
제4유형 (n=8)	15	비다문화 청소년	여	17	0.7556
	16	다문화 학부모	여	48	1.0757
	19	다문화 학부모	남	51	0.7103
	23	비다문화학부모	여	42	1.0512
	30	교사	여	29	0.6663
	32	교사	여	57	1.6125
	34	교사	남	37	2.7294
	35	교사	남	42	1.0531

2. 유형별 특성

여기서는 네 개의 유형을 나누어서 문항의 표준점수가 1.0이상 -1.0이하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 유형에서 볼드체로 된 진술문은 해당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Q표본을 설명하고 있다.

2.1. 제1유형: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한 중립적 인식 유형

제1유형에게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총 13개의 진술문이 z점수 ±1.00 이상인 가운데, 이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6개의 문항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와 사회적 인식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테면 10번 “다문화적 배경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z=1.04), 11번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z=1.26), 다문화인들도 원한다면 언제라도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z=1.42), 26번 “어려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z=1.49)” 27번 " 다문화인의 고용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z=-1.36), 28번 “동등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인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다(z=-1.82)" 가 포함되어 있어 상반되는 견해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유형 중 가장 적은 4명의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모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다.

표 3. 제1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6	**어려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1.49
01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1.49
09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47
18	**다문화인들도 원한다면 언제라도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42
1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1.31
11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1.26
08	사람들은 다문화인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1.22
10	**다문화적 배경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장점이 될 수 있**	1.04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다.	
22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	1.02
33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활동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1.12
27	**다문화인의 고용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1.36
28	**동등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인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다.**	-1.82
29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9

2.2 제2유형: 경제문제 인식 유형

앞서 언급된 제1유형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하고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제2유형에게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로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로정보나 진로체험 등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 유형에서만 z점수 ±1.00 이상이 나타난 문항들을 보면 13번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다(z=2.07)”, 12번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z=1.34), 14번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z=1.20)", 34번 “다문화 학생들은 체험이나 탐색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z=-1.34)”, 24번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z=-1.52)를 포함하고 있어 가정환경의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 유형에 가장 많은 16명의 참여자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6명의 다문화 청소년, 5명의 비다문화 청소년, 3명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 2명의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었다. 네 개의 유형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 제2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3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2.07
16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	1.92
	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9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41
12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1.34
14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20
1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1.19
08	사람들은 다문화인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1.00
33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활동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	-1.09
07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 동등하게 취업하기 힘들다.	-1.19
34	**다문화 학생들은 직업체험이나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다.**	-1.34
02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	-1.40
2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1.46
24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52
28	동등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인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다.	-1.86

2.3 제3유형: 진로교육 문제 인식 유형

제3유형을 “진로교육 문제 인식 유형”으로 명명한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로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 유형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 25번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z=2.20), 32번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z=-1.03)", 4번 ”우리 사회는 취업 시장에서 다문화인을 공평하게 대해 준다(z=-1.04)에서 강한 동의 또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진로추구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결의 측면에서 반응을 보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제 3유형에는 비다문화 청소년 1명,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부모 4명, 교사 2명이 포함되어 있어 다문화 청소년 또는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5. 제3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08	사람들은 다문화인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	2.20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다고 생각한다.	
01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1.82
1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1.57
09	다문화인은 외모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1.55
25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1.22
20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	1.14
03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1.01
23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01
32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1.03
04	**우리 사회는 취업 시장에서 다문화인을 공평하게 대해 준다.**	-1.04
02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다.	-1.18
07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 동등하게 취업하기 힘들다.	-1.22
06	다문화 학생들은 이중언어능력으로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1.73

2.4 제4유형: 전문적 지원 문제 인식 유형

제4유형 역시 3유형과 유사하게 다른 유형에서와 공통적으로 z점수가 ±1.00 이상인 문항이 많은 편이었다. 발견된다. 이 유형에서만 방향과 크기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진술문이 단 한 문항이었다. 문항 31번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z=1.10)”는 진술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개별 맞춤형 진로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유형을 “전문적 지원 문제 인식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유형에는 8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1명의 비다문화 청소년, 2명의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1명의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4명의 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형에서는 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4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5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부모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1.99
22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멘토링 참여에 있어 소극적이다.	1.69
16	다문화 학생들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59
20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기회가 드물다.	1.35
3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1.10
07	다문화인과 비다문화인 모두 동등하게 취업하기 힘들다.	-1.02
29	다문화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09
03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1.11
06	다문화 학생들은 이중언어능력으로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1.45
23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와 무관한 진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74
2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1.86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Q분류 자료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의 참여 도모와 학교생활에의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진로설계를 통해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의 인적자원의 배분을 위한 기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만족한 학교생활과 더불어 진학 및 취업에 있어 올바른 지도하에 적절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상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과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진로문제 인식유형 결과를 통해 향후 다문화 학생들이 진로교육 만족도 평가시 자료로, 둘째 진로문제 인식유형을 위한 Q분류 조사 자료를 통한 다문화 학생 지도교사와 학부모들 대상 교육자료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Q분류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에 따른 4가지 유형별 다문화 청소년 진로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표 7]에서 각 유형에서만 나타난 진술문을 통해 유형별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 1유형인 중립적 인식 유형은 다문화 청소년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속한 응답자가 모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가진 진로 장벽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현실인식이 잘 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유형의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중요할 것이며,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적 배경이 취업을 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으므로 진로상담과 진로멘토링 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26]. 이 유형에 속한 두 명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중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준비로 자격증 취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향후 노동시장 이행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데[27], 이에 맞추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시에 고려할 수 있는 취업 분야를 잘 이해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7. 각 유형에서만 나타나는 진술문

구분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 유형	26	어려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1.49
	18	다문화인들도 원한다면 언제라도 좋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42
	11	다문화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1.26
	10	다문화적 배경은 취업을 하는데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1.04
	27	다문화인의 고용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1.36
	28	동등한 조건이라면 다문화인이 취업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다.	-1.82
2 유형	13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힘들다.	2.07
	12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1.34
	14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20
	34	다문화 학생들은 직업체험이나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다.	-1.34
	24	다문화 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52
3 유형	25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1.22
	32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1.03
	04	우리 사회는 취업 시장에서 다문화인을 공평하게 대해 준다.	-1.04
4 유형	31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1.10

제 2유형인 경제적 문제 인식 유형은 다른 유형과 차별화되는 유형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제적 문제가 진로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다문화 배경의 고등학생들은 모두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취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다문화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충실한 진로 지도 및 직업교육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 유형은 진로활동에의 지원 문제, 심리적, 사회적 문제보다는 가정환경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편으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진로문제를 떠나 더 큰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지원보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다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 중 세 번째로 사회・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논의한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28].

제3유형인 진로교육 문제 인식 유형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즉,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

하는 태도는 비다문화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견해라는 것이다. 결국,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지는 어려운 진로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다문화 학생들은 진로교육에 있어서의 문제가 진로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다문화 청소년 진로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진로교육 만이 문제해결의 근본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추가 인터뷰에서 이 유형에 속한 비다문화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문화에 대한 교사, 친구,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인 전문적 지원문제 인식 유형은 다른 유형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가운데, 진로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사들에게서 이런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볼 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교사들은 다문화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도가 필요하며 학생들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 등 진로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중요하다. 나아가 교사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전담 교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들을 위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진로에 있어서의 전문적 도움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진로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2유형, 경제적 문제 인식 유형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은 가정환경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성이나, 성격, 역량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진술문에서 사용된 문항들에 대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인식들에 대해 점검해 보고 인식 전환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결과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과 비다문화 구성원들 간 인식, 청소년들이 갖는 다문화 학생의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인식과 현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진로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진로문제의 큰 원인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적 측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진로교육 측면,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경우 진로교육 정책,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취업지원 및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진로교육 기관들은 진로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려한 세심한 상담 및 멘토링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통계청, *2018 교육기본통계*, 2018.
[2] 한국일보, "다문화 청소년 '학교 밖 2만명' 언어・진로에도 관심을," 2016.12.9.
[3] 권이종, "학교중도탈락학생의 진로지도 방향," 청소년학연구, 제49권, 제1호, pp.9-34, 2009.
[4] 오성배, 서덕희,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제60권, 제2호, pp.517-552, 2012.
[5] 전종미, 장진경, "다문화가정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9권, 제1호, pp.9-34, 2009.
[6] 우룡, "도시와 농어촌 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분석,"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1권, pp.25-54, 2007.
[7] 설동훈,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복지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5.
[8] 이태주, *이민경, 박혜경, 문경희,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청소년 종합지원정책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김갑성,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21-49, 2013.
[11]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2010.
[12] 교육부,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15.
[13] 류성창,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와 과제," 제40차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pp.95-136, 2015.
[14] 이시이히 로꼬, 이영선,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제2호, pp.231-271, 2016.
[15] 김민경,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147-171, 2015.
[16] 최윤희, 김순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30권, 제3호, pp.743-662, 2011.
[17] 김교정, 정규석, "다문화 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pp.272-285, 2018.
[18] 김흥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 북스, 서울, 2008.
[19] S. R.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New Heaven, CT., 1980.
[20] 강다영, 심형화,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355-369, 2015.
[21] 안이수, "성소수자에 관한 주관성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527-539, 2018.
[22] 유일, 김소라, 이석인, 이찬영, "Q방법론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연구: 광주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6권, 제10호, pp.81-95. 2016.
[23] 이재환, 성혁제, "대학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97-210, 2015.
[24] 정세종, 김봉철, 김유미,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경찰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태도 유형: Q방법론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639-650, 2014.
[25] G. C. Thompson,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 Berelson and M. Janowitz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1966.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9-R14, 2009.
[27] 김기홍, 이남철, 나현미,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18-03, 2018.
[28] 정석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상대적 우선 순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1호, pp.317-32, 2018.

저 자 소 개

김 소 라(Sora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미국 위스컨신 주립대학(소비자학 석사)
- 2004년 12월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소비자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광고규제, 정보화정책, 청소년정책